

4·9 총선 이슈

선거구 획정 어떻게 되나

광주 광산 분구... 전남 2곳 감소 주목

인구 상·하한선 결정이 판도 좌우

선거구 획정 문제는 광주·전남 지역 총선 판도를 좌우할 전망이다. 당장 인구 하한선(10만5천~31만5천명)이 무너지면...

전남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는 선거구획정위에서 마련한 안을 토대로 선거법 개정을 통해 국회의원 선거구를 확정하도록 돼있다.

관련 틀을 새로 만들고 있다. 인구 상·하한선은 2001년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최대·최소 지역구 간 인구 비율이 3대 1을 넘을 수 없도록 한 선거구 획정 기준이다.

선 10만1376명으로 분리되며 전국의 지역구는 현행 243개에서 242개로 1석이 줄어든다. 지역적으로 영남과 호남이 각 2개씩 줄어들며 경기도에서 3개가 늘어난다.



21일 서울 당산동 대통령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손학규 대표가 회의의 전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당 전대 총선 이후로 연기

손 대표 오늘 광주 방문 민심잡기

대통합민주당은 21일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고 내달 3일로 예정됐던 전당대회를 개최하지 않고, 총선 이후 3개월 이내에 전대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총선 이후 민의를 수렴하고 지역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총선 이후 3개월 이내에 전대를 소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에 선병렬, 정의용 의원이 각각 선임됐으며 임내현 법률구조위원장, 윤원호 전국여성위원장, 이홍성·박홍근 청년위원장, 장항숙 장애인위원장, 신진규 노인위원장은 유임됐다.

신당-민주 '물같이 통합론' 대두

호남 의원들 반발 진통 예고

대통합민주당과 민주당 내에서 양당 통합의 한 방안으로 '물같이 통합론'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물같이 통합론'이란 총선에서 살아남기 위해 양당이 통합을 추진하되, 현실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공천 문제는 '물같이'라는 인적쇄신을 통해 극복하자는 주장이다.

신당의 한 수도권 초선의원은 21일 “호남지역의 경우 어차피 출마할 사람들이 많은 만큼 양당이 통합해 경선 등 공정한 공천 경쟁 구도만 만들어 준다면 호남지역의 통합 및 물같이 여론에 화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제기된다. 일단 민주당 박상천 대표가 22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야권 통합 및 당의 진로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신당 지도부 내에서도 통합론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다.

강운태씨 예비후보 등록 남구 표밭갈이

4·9 총선 현장

○강운태 전 장관이 21일 광주 남구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남구청과 남부경찰서를 방문하는 등 표밭갈이를 본격화. 무소속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한 강 전 장관은 순천시장, 광주광역시, 농림수산부 장관, 내무부 장관 등 화려한 공직경험을 통해 쌓아 온 검증된 능력과 중앙의 풍부한 인맥, 각종 비리에 한 번도 오르지 않는 깨끗함을 감점으로 내세워 타 후보와 경쟁한다는 방침.

김 예비후보는 “수십 년간 남구민으로 살아오면서 남구에 부족한 점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며 “낙후한 남구를 살릴 수 있는 경제일꾼이 되겠다”고 다짐.

정기남 사회여론연구소장 출마 공식 선언

○정동영 전 대통령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대위 총괄조정실장을 맡았던 정기남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부소장이 21일 “국회에 입성, 5년 뒤 민주 개혁 세력의 집권 방안을 마련하는 디자이너가 되겠다”며 18대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

윤복현 전 무등일보 부사장 본격 행보

○윤복현 전 무등일보 부사장이 최근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치고 해남·진도 지역 총선 출마를 위한 얼굴 알리기 행보를 본격화.

김화진씨 후원회 결성 선거운동 돌입

○광주 남구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화진씨(민주당)가 후원회를 결성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 후원회장으로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전남노회장인 광주남문교회 양원훈 담임목사가 선출됐으며, 선거기간 동안 물심양면으로 김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원할 계획.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Large advertisement for 'SUPER M' featuring a film strip graphic with various scenes and text. Text includes '함께하는 또 하나의 커뮤니티...', '2008년 KT(광주) 정보문화부 특별!', and '2008년 사업제 CD(정보부) 결합 전략!'. It also lists website URLs like www.pdrj.com and www.tdmh.co.kr.